산업부문 업종 분류 및 수송부문 Hybrid SAM 구축 방안 관련 회의

# **일시 및 장소:** 2016년 6월15일, KAIST 경영대학

# **참석자:** 권용진, 엄지용, 조철흥 (이상 KAIST), 강성원 (KEI), 한미진 (서울대)

# **산업부문 업종 분류 관련 논의 및 합의 사항**

1. ‘화학섬유제조업’(KSIC 205)은 감축정책상의 업종분류에서 ‘섬유의복’이 아니라 ‘석유화학’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

(GIR측 확인결과: 2011년 당시 관련 협회 요청으로 국장급회의에서 섬유의복으로 분류하기로 결정)

1. 감축정책상의 ‘전기전자’, ‘자동차’를 에너지-비에너지로 구분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에너지연소와 공정배출(Fgas)로 구분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 업종분류는 필요하지 않음
2. 감축정책상에는 ‘디스플레이’, ‘반도체’ 업종이 구분되어 있으나, 에총보에서는 ‘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’(KSIC 26)이하의 자료제공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 불가

(GIR측 확인결과: 2011년 당시 녹색위의 외부용역(연세대) 결과를 근거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업종으로 세분화 했음)

1. ‘코크스 및 연탄제조’(KSCI 191)을 감축목표상의 ‘기타제조’로 구분하는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. ‘석탄제품제조업’을 별도로 만들어 CGE에서는 모형화하는 것이 타당
2. 감축목표상의 철강, 석유화학, 섬유, 제지목재, 시멘트, 요업, 기계, 전기전자, 디스플레이/ 반도체, 자동차 등 총 10개 업종을 에너지/탄소집약적인 업종으로 분류하여 상향식에서 모형화하기로 함. (2020년 BAU 배출전망에서 국가 총 배출량의 1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)
3. 감축정책과 I/O 통계간의 업종 매칭작업은 강성원 박사님이 진행할 예정

# **수송부문 Hybrid SAM 구축 관련 논의 및 합의 사항**

1. 산업부문의 (자체)수송용 에너지 사용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가정하고 선박 에너지사용량은 고려하지 않기로 함. (선박이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을 정확하게 가려낼 수 없는 문제가 있음)
2. Hybrid SAM은 운수업과 별도로 가정과 산업부문의 자체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(자체수송업)을 만들어 상향식 정보를 활용하여 E, K을 반영함. 자체수송업은 passenger 와 freight 추가 세분화